

레위기

주제: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는 출애굽기의 속편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맨 마지막이 성막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레위기 첫 부분은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레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6 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사법을 다루고 있으며, 17-27 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결법을 다루고 있다. 핵심 단어는 90 회 이상 반복되는 ‘거룩’이고, 핵심 구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이다.

I 제사법 (레 1-16 장)

장과 주제	사실(Fact)	의미(Meaning)	적용(Application)
1-7 장 5 대 제사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이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에 안수한다.	희생 없는 제사가 없다. 그리고 예배자는 관람자가 아니라 제물과 동일시되는 사람이다.	나의 예배는 희생이 있는 제사인가, 아니면 희생이 없는 제사인가?
	소제는 고운가루를 드리는 제사이다. 기름, 유향, 소금은 넣고,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다.	위선과 쾌락은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고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유향과 변치 않는 믿음으로 드린다.	나는 예배를 통해 옛 자아가 부서지고 성령과 기도와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를 드리는가?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이다. 그 제사를 드린 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린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이,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는가?
	속죄제는 배상이 불가능한 하나님께 대한 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죄의 속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바른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가?

F.M.A 성경공부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제사이다.	진정한 회개는 보상과 연결된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의 배상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느끼는가?
16 장 속죄일	일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절기 (욘키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하는가?
	두 염소를 회막문 앞에서 제비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광야에 보내진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로 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는가 (갈 2:20)?

II 성결법 (레 17-27 장)

장과 주제	사실(Fact)	의미(Meaning)	적용(Application)
23 장 7 대 절기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주일)을 잘 지키는 일인지 서로 나누어 보자.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며, 무교절에는 누룩 없이 급히 출애굽한 것을 기억한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구원 얻은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고, 또한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 가는가?
	초실절은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이다.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을 물리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가?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린 날로부터 50 일이 되는 날이다.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며 성령이 이 때 임하셨다.	나는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이 땅에 불어 영적 추수의 날이 올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 절기이다.	나팔은 복음의 나팔과 재림의 나팔을 예표한다.	나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가? 재림의 나팔 소리를 기대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가?
	속죄일은 1년 1차 국가적 속죄일이다.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예배자가 되는가?
	초막절(장막절, 수장절)은 추수를 끝낸 후에 지키는 절기이며, 또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추수를 마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광야에서 지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는가?
25 장 안식년과 희년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며, 그 땅의 소출은 종이나 거류자들이나 가축이나 들짐승들의 양식이었다.	7년째는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다.	오래 가지고 있다가 보면 내 것인 줄 착각한다. 나도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는가?
	50년째 해가 희년이며, 노예가 해방되며 땅도 원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 (레 19:18).	희년의 참된 의미는 회복이다.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다 (눅 4:18).	땅과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의 뜻대로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사는가?